

南齊書

東夷

百濟傳

남제서

동이

백제전

송준희 번역·주해

서 문

우리역사는 의문 투성이다.

삼국사기에 등장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이 중국 정사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이 많지 않다.

본 책에서 소개하는 중국의 '남제서'라는 정사를 보면, 백제가 400년대 중국 대륙 동해안을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한 국내 학자는 없다.

중국 정사 25사중 하나인 '남제서'의 기록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여, 위대하였던 백제 동성대왕의 역사를 주변에 알리고자 본 자료를 소개한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고기원 11,148년 음력 8월 12일(춘분, 양력 9월 9일)

우리역사의 비밀(www.coo2.net) 송준희

* 목 차 *

서 문	1 페이지
목 차	2 페이지
1. 남제서에 나오는 주요내용 요약	3 페이지
2. 남제서 백제전 앞부분 15줄 324자를 고의로 삭제하다.	5 페이지
1) 남제서 소개	6 페이지
2) 원문소개 : 1637년 판본	7 페이지
3) 남제	8 페이지
4) 고의로 삭제한 남제서 백제전 앞부분 15줄 324자	9 페이지
3. 남제서 원문해설	
1) 남제서에 나오는 인명 및 직책 일람표	10 페이지
2)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 강역 추정	11 페이지
3) 원문해설	12 페이지
4. 백제의 8대 대성 추적	
1) 사서의 기록	31 페이지
2) 백제의 8대 성씨 추적 종합도	
3) 개별 성씨 추적자료	
(1) 사씨	33 페이지
(2) 연씨	36 페이지
(3) 협씨	38 페이지
(4) 해씨	39 페이지
(5) 진씨	40 페이지
(6) 국씨	41 페이지
(7) 목씨	42 페이지
(8) 묘씨	43 페이지
(9) 기타 부여씨, 복씨, 골씨	44 페이지
(10) 종합의견	45 페이지
5. 삼국사기 열전 제46 최치원전	46 페이지
6. 자연현상 기록을 이용한 삼국의 위치 고증	47 페이지

1. 남제서(南齊書)에 나오는 주요내용 요약

○ 490년 북위 효문제가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침공

- 효문제 원굉(孝文帝 元宏, 467년 ~ 499년, 재위 : 471년 ~ 499년) : 북위의 제6대 황제. 성은 탁발(拓跋), 후에 성을 고쳐서 원(元)씨로 바꾼다. 묘호 고조(高祖)
- 당시 북위의 수도는 평성(산서성 대동시) → 493년 낙양으로 천도
- 동원 병력수는 기병 수십만

○ 백제 동성대왕이 사법명, 해례곤, 목간나, 찬수류 4명의 장수를 보내 격퇴

- 동성왕(東城王, ? ~501년, 재위 : 479년~501년) : 백제의 제 24대 왕이다. 성은 부여(扶餘), 이름은 모대(牟大)·마모(摩牟)·마제(麻帝)·여대(餘大)이다. 21대 문주왕(文周王)의 아우인 좌평(佐平) 곤지(昆支)의 둘째 아들로써 담력이 있고 활을 쏘는 솜씨가 뛰어났다. 삼근왕 때 일어난 해구(解仇)의 반란을 평정한 뒤 정권을 잡은 진씨(眞氏) 세력에 의해 옹립되어 삼근왕의 뒤를 이음.
- 사법명(沙法名), 찬수류(贊首流), 해례곤(解禮昆), 목간나(木干那) : 沙, 贊, 解, 木씨는 당시 백제의 8대 대성이었는데, 한반도에는 없고 중국에만 존재하는 성씨이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490년 전쟁은 언급이 없고, 2년 앞선 488년 전쟁기록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 이미 북위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

東城王十年, 魏兵來伐, 爲我所敗
동성왕십년, 위병래벌, 위아소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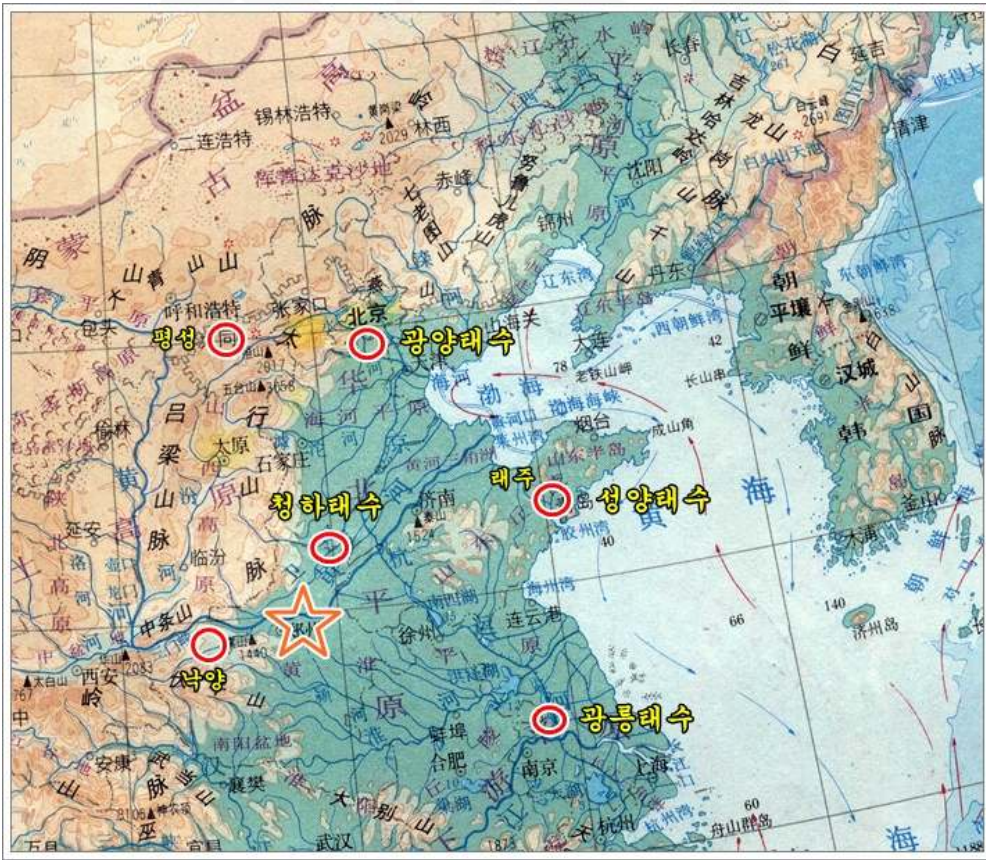
동성왕 10년(488년) 위가 군사를 보내어 우리를 치다가 우리에게 패하였다.

○ 490년 전쟁에 승리한 후 동성대왕이 임명한 태수의 위치

* 태수의 직책 및 위치

성명	기존직책	신규직책
고달(高達)	건위장군(建威將軍) ·광양태수(廣陽太守)·장사(長史)	용양장군(龍驤將軍) ·대방태수(帶方太守)
양무(楊茂)	건위장군(建威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사마(司馬)	건위장군(建威將軍) ·광릉태수(廣陵太守)
회매(會邁)	선위장군(宣威將軍)·참군(參軍)	광무장군(廣武將軍) ·청하태수(清河太守)
모유(慕遺)	-	용양장군(龍驤將軍) ·낙랑태수(樂浪太守) 장사(長史)
왕무(王茂)	-	건무장군(建武將軍) ·성양태수(城陽太守) 사마(司馬)
장새(張塞)	-	참군(參軍)·진무장군(振武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

* 확인이 가능한 4개 태수의 관할지역 : 중국 동부지역 전체



2. 남제서 백제전 앞부분 15줄 324자를 고의로 삭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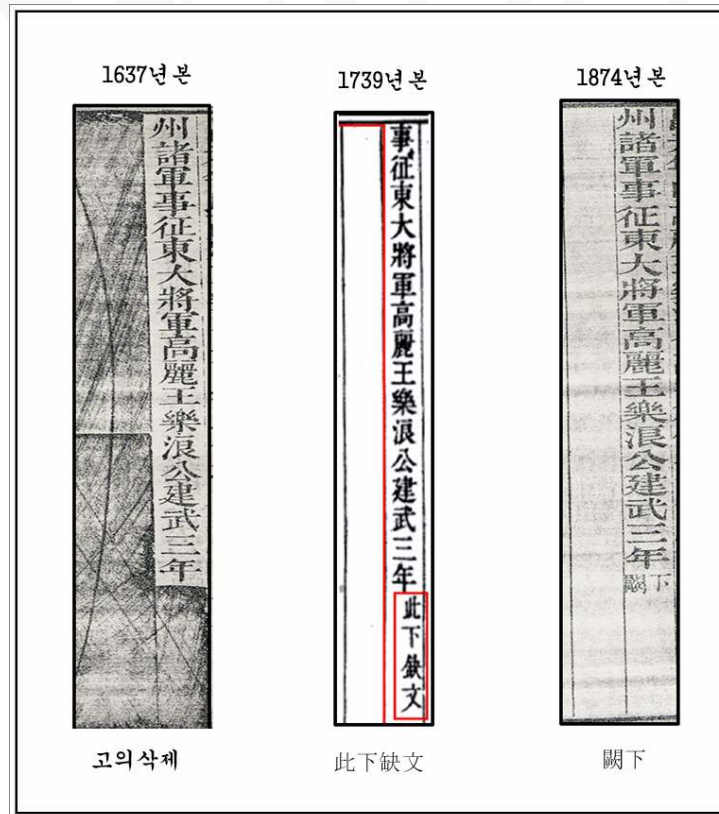
南齊書 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夷
남제서 권오십팔 열전 제삼십구 동이

서토(중국)는 백제전 앞부분 15줄 324자를 고의로 삭제하여, 대륙백제의 흔적 및 백제이전의 역사를 지우려 노력하였으나, 남겨진 역사기록만으로도 대륙백제의 역사는 백일하에 드러난다.

* 백제국(百濟國) 부분 일부 고의 삭제

1637년 판본은 해당부분을 가리고 등사를 하였고
1874년 판본은 궐하(闕下)라 표시하여 삭제하였고
1739년 판본은 차하결문(此下缺文)이라 표시하여 은폐하였다.

* 남제서 백제전 판본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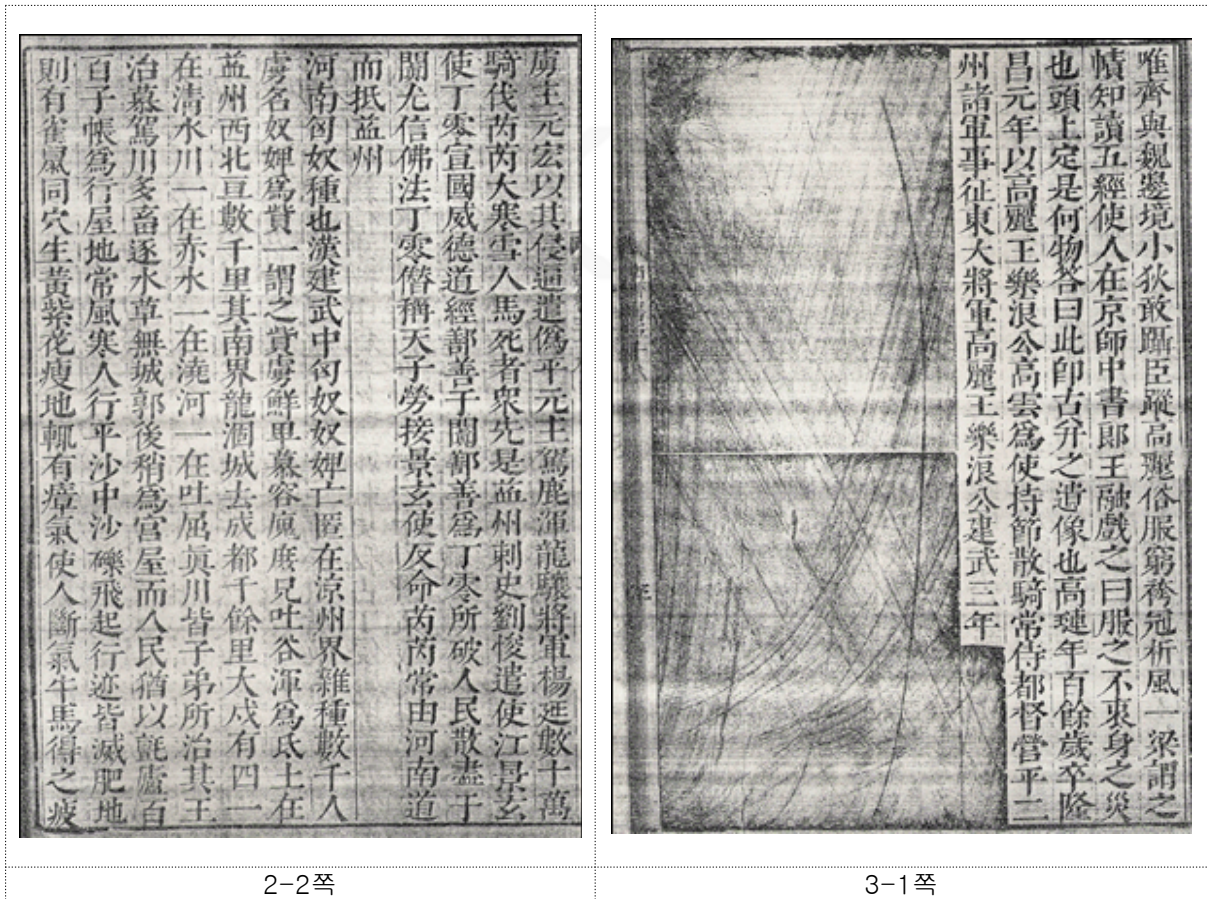


1) 남제서(南齊書) 소개

남조 양나라 때인 AD537년에 소자현이 편찬한 것으로, 남조 제나라(479년~502년)의 역사를 담았다.

총 60권으로 자서 1권, 본기 8권, 지 11권, 열전 4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자서 1권이 당나라때 소실되어 59권만 전한다. 중국 정사 25사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사서로 취급된다.

2) 원문소개 : 고려대 중앙박물관(대학원) 한적실, 1637년 판본, 남제서 58권



2-2쪽

3-1쪽

政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半大又表曰臣所遣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臣高達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行宣威將軍兼參軍臣會邁等三人志行清亮忠款夙著往太始中比使宋朝今任臣使月涉波險尋其至効宜在進爵謹依先例各假行職且玄澤靈休萬里所企況親趾天庭乃不蒙顧伏願天監特愍除正達邊効夙著勤勞公務今假行龍驤將軍帶方太守茂志行清壹公務不廢今假行建威將軍廣陵太守萬執志周密屢致勤効今假行廣武將軍清河太守詔可並賜軍號除太守為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使兼謁者僕射孫副策命大襲亡祖父牟都為百濟王曰於戲惟爾世襲忠愍誠著遐表滄路肅慙要貢無替式循彝典用暴顯命往欽哉其敬膺休業可不慎歟制詔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牟大今以大襲

4-1 倅

報功勞勤實存名烈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振竭忠効攘除國難志勇果毅等威各將可謂扞城固蕃社稷論功料勤宜在甄顯今依例輒假行職伏願思愍聽除所假寧朔將軍面中王姐瑾歷贊時務武功並列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建威將軍八中侯餘古弱冠輔佐忠効夙著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建威將軍餘歷忠効有素文武列顯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廣武將軍餘固忠効時務光宣國

3-2 倅

在官忘私唯公是務見危授命蹈難弗顧今任臣使月涉波險盡其至誠實宜進爵各假行署伏願聖朝特賜除正詔可並賜軍號加羅國三韓種也建元元年國王荷知使來獻詔曰量廣始登遠夷洽化加羅王荷知款關海外奉贊東遐可授輔國將軍本國王倭國在帶方東南大海島中漢末以來立女王土俗已見前史建元元年進新除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武號為鎮東大將軍南夷林邑國在交州南海行三千里北連九德秦時故林邑縣也漢末稱王晉太康五年始貢獻宋永初元年林邑王范楊邁初產母夢人以金席藉之光色奇麗中國謂紫磨金夷人謂之楊邁故以為名楊邁死子咄立慕其父復改名楊邁林邑有金山金汁流出於浦事尼乾道鑄金銀人像大十圍元嘉二十二年交州刺史

5-1 倅

祖父牟都為百濟王卽位章後等王銅虎符曰其拜受不亦休乎是歲魏虜又發騎數千萬攻百濟入其界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率眾襲擊虜軍大破之建武二年牟大遣使上表曰臣自昔受封世被朝榮奉荷節鉞冠履列辟王姐瑾等並蒙光除臣庶咸泰去庚午年獫狁弗俊舉兵深逼臣遣沙法名等領軍逆討宵襲寇擊匈梨張惶崩若海蕩乘奔追斬僵尸丹野由是摧其銳氣鯨暴輻凶今邦宇謐靜實名等之略尋其功勳宜在褒顯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贊首流為行安國將軍辟中王解禮昆為行武威將軍弗中侯木干那前有軍功又拔臺勸為行廣威將軍面中侯伏願天恩特愍聽除又表曰臣所遣行龍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臣慕遵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臣王茂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子臣張寒行揚武將軍陳明

4-2 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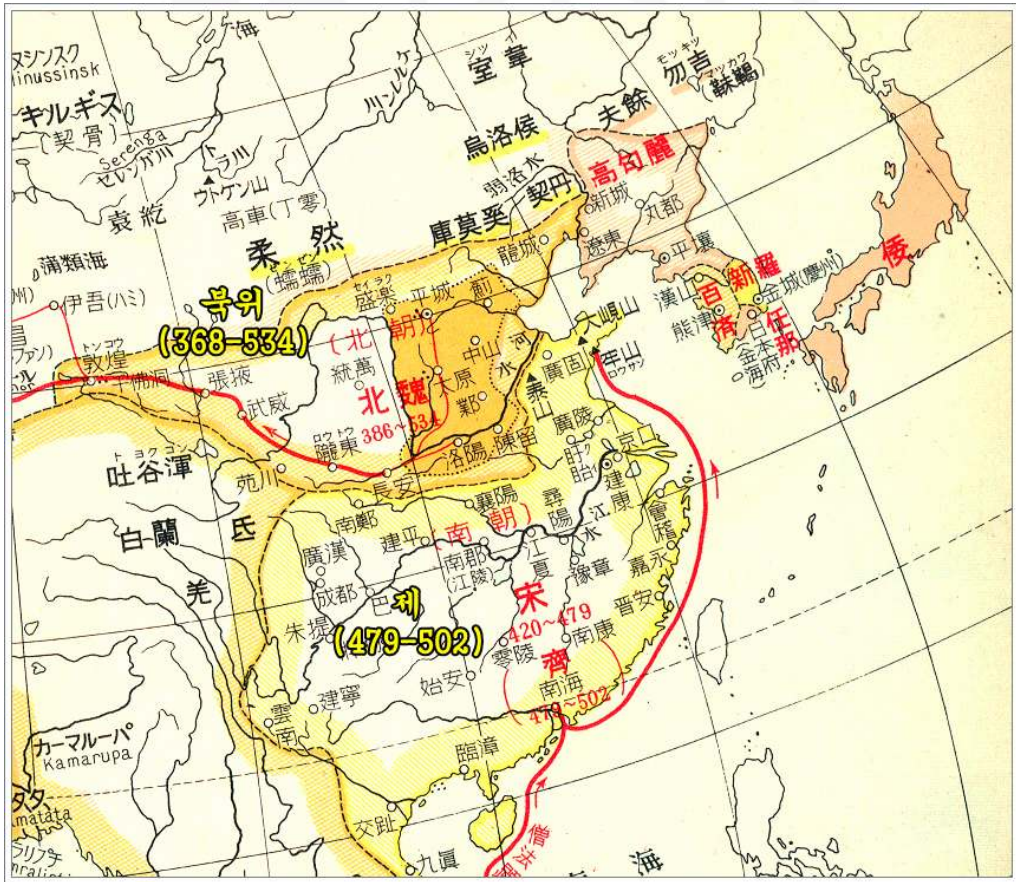
3) 남제(南齊)

- 남제는 소도성(蕭道成:427~482)이 창건한 중국의 왕조(479~502)로 남조(南朝)시대의 두 번째 왕조로서, 북제(北齊:550~577)와 구별하여 남제라고 한다.
- 백제 제24대 동성대왕(재위 479~501) 한반의 재위기간과 같은 초미니 소국으로, 24년 동안 왕이 일곱 번 바뀌는데, 호북성 '형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이다.

* 3개국 존속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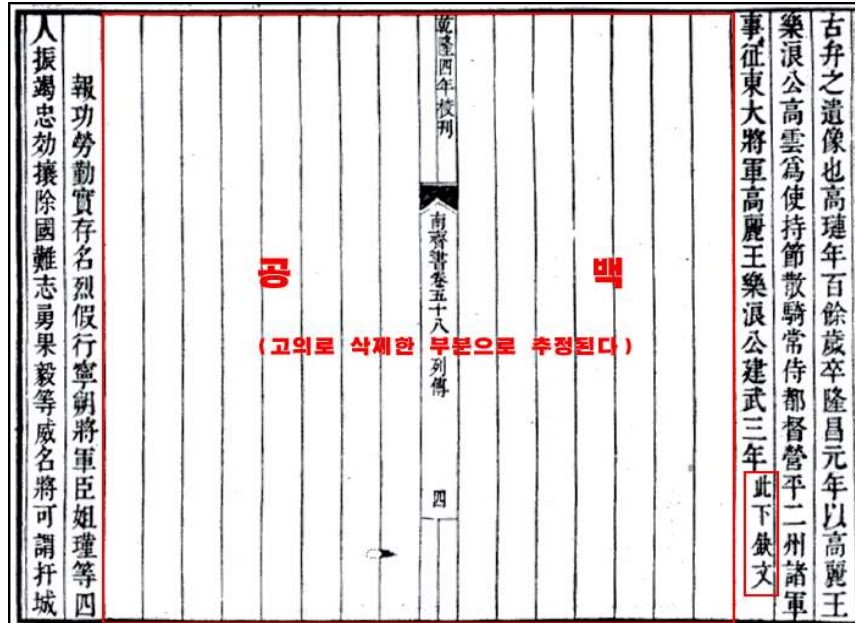
- 백제(B.C 18년 ~ AD660) : 678년 존속
- 북위(AD 386 ~ 534) : 149년 존속
- 남제(AD 479 ~ 502) : 24년 존속

* 1954년 일본인들이 그린 강역도 :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4) 고의로 삭제한 남제서 백제전 앞부분 15줄 324자

* 남제서 1739년본



- 일본인들은 삭제되지 않은 진본을 100년째 찾고 있다고 하며, 고 임승국 교수 (명지대 고대사 강의)는 중국에서 거주할 때 삭제되지 않은 진본을 직접 본적이 있다고 1981년 국회 '국사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 서토인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면서 삭제한 15줄 324자 속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을까? 반드시 이기록을 찾아 서토가 은폐하려 한 우리의 상고사를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학자들은 중국 정사 25사중 하나인 남제서 언급을 금기시 하며, 연구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제자들을 동원하여 원래 문구가 없었는데 민족사학하는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대륙백제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1994년에는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의 아래 논문에 의해 대륙백제가 증빙되기도 하였는데 아직까지 단하나의 반박논문도 제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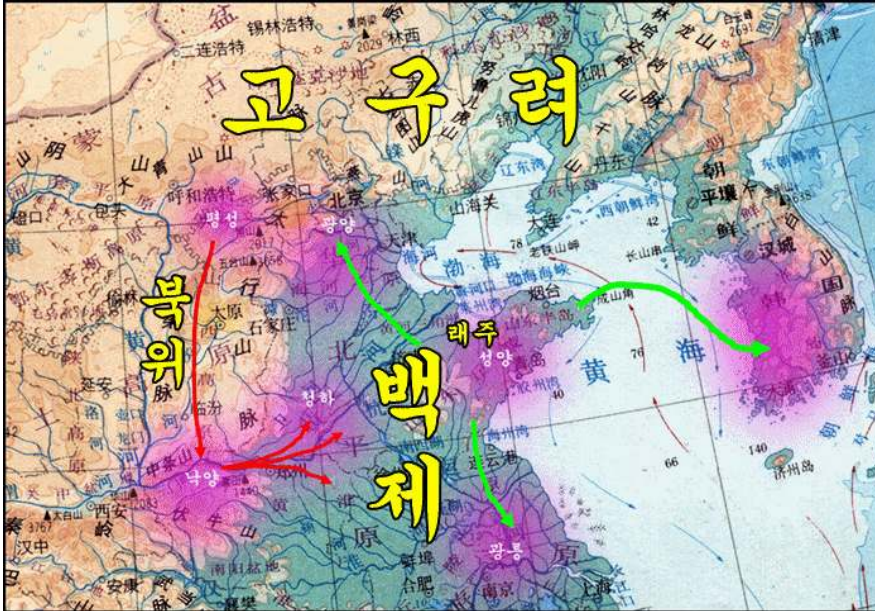
* 한국과학사학회 16권 2호 (1994), 167. : 삼국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

3. 남제서 원문해설

1) 남제서에 나오는 인명 및 직책 일람표

성명	기존직책	신규직책
저근(姐瑾)	영삭장군(寧朔將軍) 면중왕(面中王)	관군장군(冠軍將軍) 도장군(都將軍)·도한왕(都漢王)
여고(餘古)	건위장군(建威將軍) ·팔중후(八中侯)	영삭장군(寧朔將軍) ·아차왕(阿錯王)
여력(餘歷)	건위장군(建威將軍)	용양장군(龍驤將軍) ·매로왕(邁盧王)
여고(餘固)	광무장군(廣武將軍)	건위장군(建威將軍) ·불사후(弗斯侯)
고달(高達)	건위장군(建威將軍) ·광양태수(廣陽太守)·장사(長史)	용양장군(龍驤將軍) ·대방태수(帶方太守)
양무(楊茂)	건위장군(建威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사마(司馬)	건위장군(建威將軍) ·광릉태수(廣陵太守)
회매(會邁)	선위장군(宣威將軍)·참군(參軍)	광무장군(廣武將軍) ·청하태수(清河太守)
사법명(沙法名)	-	정로장군(征虜將軍)·매라왕(邁羅王)
찬수류(贊首流)	-	안국장군(安國將軍)·벽중왕(辟中王)
해례곤(解禮昆)	-	무위장군(武威將軍)·불중후(弗中侯)
목간나(木干那)	-	광위장군(廣威將軍)·면중후(面中侯)
모유(慕遺)	-	용양장군(龍驤將軍) ·낙랑태수(樂浪太守) 장사(長史)
왕무(王茂)	-	건무장군(建武將軍) ·성양태수(城陽太守) 사마(司馬)
장새(張塞)	-	참군(參軍)·진무장군(振武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
진명(陳明)	-	양무장군(揚武將軍)

2)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 강역도 추정



* 백제 방어를 위한 주요 태수의 위치

- 광릉태수 : 북경쪽에서 남진하는 고구려나 북위 방어
- 청하태수 : 산서성 쪽에서 황하를 타고 동진하는 북위 방어
- 성양태수 : 황해를 타고 공격해오는 적을 방어 (태산, 래주만 인근 수도방어)
- 광릉태수 :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방어

* 백제 도읍지는 산둥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서지리지 산둥성 ‘동래군’ 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弦有百支萊王祠 有鹽官 師古曰弦音堅

견유백지래왕사 유염관 사고왈견음견

☞ 弦(견) : 앞부분에 수견 견(巾)변이 있는 글자이다.

‘동래군’ 속한 현중에 "견(弦)현"이 있는데, 그곳에는 백지래왕(百支萊王)의 사당이 있고, 소금담당 관청이 있었다. 사고왈(안사고왈) 견의 음은 견(堅)이라 하였다.

이곳의 위치는 지금 산둥성 래주만 인근이다.

3) 원문해설

朔將軍臣姐瑾等四人振竭忠効攘除國難志勇果毅等威各將
 可謂扞城固蕃社稷論功料勤宜在甄顯今依例輒假行職伏願
 思愍聽除所

(백제국에는.....) 報功勞勤, 實存名烈.

보공로근, 실존명렬.

(백제국에는.....) 공과 힘써 부지런함으로 값으니 실지 빛나는 이름이 있다.

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 振竭忠効, 攘除國難. 志勇果毅, 等威名將, 可謂扞城.

가행녕삭장군신저근등사인, 진갈충효, 양제국난, 지용과의, 등위명장, 가위한성

임시로 영삭장군을 수행하는 신하 '저근' 등 네사람은 충성으로 떨치고 일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그 뜻이 용맹하고 과감하여 위엄이 명장이라 할 만하오니, 가위 간성의 재목입니다.

固蕃社稷, 論功料勤, 宜在甄顯. 今依例輒假行職. 伏願恩愍, 聽除所. 고번사직, 논공료근, 의재견현. 금의례첩가행직. 복원은민, 청제소

사직을 지켜 견고히 하고 공을 의논하여 부지런히 했으니, 마땅히 그 행적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도에 의해 번번히 임시로 직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은혜로 불쌍히 여기어, 청을 받아 주시옵소서.

假寧朔將軍·面中王姐瑾，歷贊時務，武功竝列，今假行冠軍將軍·
 都將軍·都漢王·建威將軍·八中侯餘古弱冠輔佐，忠効夙著，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假寧朔將軍·面中王姐瑾，歷贊時務，武功竝列，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가녕삭장군·면중왕저근, 력찬시무, 무공병렬, 금가행관군장군·도장군·도한왕.

임시로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두루 나라의 시급한 업무를 잘 처리하고, 군사적인 공적 또한 뛰어 났으므로, 지금 임시로 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建威將軍·八中侯餘古，弱冠輔佐，忠効夙著，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건위장군·팔중후여고, 약관보좌, 충효숙저, 금가행영삭장군·아착왕.

건위장군 팔중후 '여고'는 20세부터(약관) 나를 보좌하여 충성을 받친것이 일찍이 드러났으므로, 지금 임시로 행영삭장군 '아착왕'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政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列顯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効夙著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忠款有素文武
 廣武將軍餘固忠効時務光宣國
 政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건위장군여력, 충관유소, 문무렬현, 금가행룡양장군·매로왕.

건위장군 '여력'은 근본적으로 충성과 정성을 가지고 있고 문무가 뛰어나게 드러나서 지금 임시로 용양장군 '매로왕' 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廣武將軍餘固, 忠効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광무장군여고, 충효시무, 광선국정, 금가행건위장군·불사후.

광무장군 '여고'는 충성을 받쳐서, 날의 시급한 업무를 밝게 펴서 나라를 다스리었으므로, 지금 임시로 건위장군 '불사후' 직을 수행 시켰습니다.

宣威將軍兼參軍臣會邁等三人志行清亮忠款夙著

陽太守兼長史臣高達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行

牟大又表曰臣所遣行建威將軍廣

牟大又表曰

모대우표왈

'모대'가 또 표문을 올려 말하길

臣所遣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臣高達,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會邁 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
신소견행건위장군·광양태수·겸장사신고달,
행건위장군·조선태수·겸사마신양무,
행선위장군·겸참군신희매등삼인, 지행청량, 충관숙저.

신이 보내는 신하인 고달에게 건위장군 광양¹⁾태수 겸 장사직을 수행하게 하였고, 신하인 양무에게 건위장군 조선태수 겸 사마직을 수행하게 하였고, 신하인 희만에게 선위장군 겸 참군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1) 광양 : 하북성 북경인근 창평

3인은 뜻과 행동이 맑고 밝아서 충성된 마음이 일찍부터 나타나서

1) 광양 : 하북성 북경인근 창평(昌平), 량향(郎鄉) 일대를 말한다.

광양	廣陽	燕地名	史記	地名考	601		
광양	廣陽		廣陽國	漢書	1634	方輿	
광양국	廣陽國		廣陽國	漢書	1634	方輿	
광양	廣陽		탁郡	漢書	1578	왕망	前漢 때는 良鄉
광양	廣陽		廣陽郡	後漢書	3527	方輿	
광양군	廣陽郡		廣陽郡	後漢書	3527	方輿	霸州, 昌平州, 하북北京
광양	廣陽	燕國	幽州	晉書	425	方輿	
광양	廣陽	汶山郡	益州	晉書	439	方輿	
광양	廣陽			宋書	1035		
광양	廣陽			南齊書	00254		
광양산	廣陽山		루余水系	水經注	15-22		赤岸水
광양산	廣陽山		谷水系	水經注	16-02		廣陽川水
광양수	廣陽水	聖水	聖水系	水經注	12-04		出小廣陽西山
광양수	廣陽水		渭水系	水經注	17-02		
광양천수	廣陽川水		谷水系	水經注	16-02		出廣陽北山
광양	廣陽	燕郡	幽州	魏書	2475	方輿	
광양	廣陽	馮翊郡	雍州	魏書	2608	方輿	
광양군	廣陽郡	廣陽郡	定州	魏書	2486	方輿	
광양	廣陽	太原府	河東道	舊唐書	1482	方輿	平度州(平定廢縣)산서太原
광양	廣陽			新唐書	1004		
광양산	廣陽山	合池縣	河南府	方輿	2075	河南	현동북삼십리
광양성	廣陽城	良鄉縣	順天府	方輿	0481	河北	北京 漢縣
광양성	廣陽城	平定州	太原府	方輿	1700	山西	州東南三十里
광양성	廣陽城	府內	西安府	方輿	2340	陝西	縣北
광양수	廣陽水	府內	鞏昌府	方輿	2572	陝西	府西南九十里
광양페현	廣陽廢縣	廣德州	直隸	方輿	1332	安徽	寧國 春秋時地名桐汭



特愍除正

比使宋朝今任臣使冒涉波險尋其至効宜在進爵謹依先例各假行職且玄澤靈休萬里所企況親趾天庭乃不蒙賴伏願天監

徃太始中

往太始中 比使宋朝, 今任臣使, 冒涉波險, 尋其至効, 宜在進爵, 謹依先例, 各假行職.

왕태시중 비사송조, 금임신사, 모섭파험, 심기지효, 의재진작, 근의 선례, 각가행직.

지난 '태시'년중에 송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간일도 있사옵고, 이제 는 신의 사신을 맡아 먼 바닷길 험한 데를 가서, 그 지극한 효험 을 나타냈사오니 마땅히 작위를 올려 주어, 삼가 먼저 예에 의하 여 각각 행직을 주시기 바랍니다.

且玄澤靈休, 萬里所企, 況親趾天庭, 乃不蒙賴.
차현택령휴, 만리소기, 황친지천정, 내불몽뢰.

또한 현택과 영휴는 만리길이 먼데도 친히 천자의 조정에 갔사오 나 종시(끝내) 은혜를 입지 못했사오니,

伏願天監特愍除正.
복원천감특민제정.

앞드려 바라옵건데, 굽이 살피시어 특별히 벼슬을 제수하시옵소서.

致勤効今假行廣武將軍清河太守詔可竝賜軍號除太守
 志行清壹公務不廢今假行建威將軍廣陵太守萬執志周密屢
 達邊効夙著勤勞公務今假行龍驤將軍帶方太守茂

達邊効夙著, 勤勞公務, 今假行龍驤將軍·帶方太守.
 달변효숙저, 근로공무, 금가행룡양장군·대방태수.

'(고)달'은 변방에의 공로가 일찍이 드러났고 공무에 힘썼으므로 지
 금 임시로 용양장군 대방²⁾태수직을 수행시켰습니다.

2) 대방 : 하북성 유역으로 추정됨

茂志行清壹, 公務不廢, 今假行建威將軍·廣陵太守.
 무지행청일, 공무불폐, 금가행건위장군·광릉태수.

'(양)무' 뜻과 행동이 맑게 지탱하고 공무를 폐지하는 일이 없었으
 므로 지금 임시로 건위장군 광릉³⁾태수 직을 수행시켰습니다.

3) 광릉 : 강소성 양주시

萬執志周密, 屢致勤効, 今假行廣武將軍·清河太守.
 만집지주밀, 루치근효, 금가행광무장군·청하태수.

'만(회매:會邁)'은 굳센 마음으로 주도면밀하고 빠르게 시행하고 부
 지런히 살피므로 지금 임시로 광무장군 청하태수⁴⁾직을 수행시켰습
 니다.

4) 청하 : 하북성 청하, 영년 인근

詔可, 竝賜軍號, 除太守.
 조가, 병사군호, 제태수.

남제왕이 백제에게 허락함을 알리고 아울러 군호를 내려주고 태수
 에 제수하고,

3) 광릉 : 강소성 양주시를 말한다.

광릉	廣陵	建元已來	史記	地名考	813		
광릉	廣陵		廣陵國	漢書	1638	方輿	
광릉국	廣陵國		廣陵國	漢書	1638	方輿	
광릉국	廣陵國		廣陵國	後漢書	3461	方輿	
광릉군	廣陵郡	廣陵郡	徐州	晉書	452	方輿	
광릉군	廣陵郡	廣陵郡	徐州	晉書	452	方輿	
광릉군	廣陵郡	廣陵郡	豫州	魏書	2535	方輿	
광릉	廣陵	蔚州	大同府	遼史	512	方輿	廣陵. 산서大同
광릉	廣陵	梁宋地名	史記	地名考	541		
광릉	廣陵			宋書	1054		
광릉	廣陵			宋書	1054		
광릉	廣陵			宋書	1191		
광릉	廣陵			南齊書	00256		
광릉군	廣陵郡	광릉군		南齊書	00256		
광릉성	廣陵城	文安縣	順天府	方輿	0496	河北	北京 與保定縣接界
광릉성	廣陵城	江都縣	揚州府	方輿	1061	江南	府城東北
광릉성	廣陵城	馬邑縣	大同府	方輿	1880	山西	縣置
광릉성	廣陵城	光州	汝寧府	方輿	2191	河南	縣西南



4) 청하 : 하북성 청하, 영년 인근

청하국	清河國	清河國	冀州	晉書	424	方輿	
청하	清河			宋書	1044		
청하	清河			宋書	1100		
청하	清河			宋書	1100		
청하	清河			南齊書	00248		
청하	清河	屯氏河	河水系	水經注	05-20		十三州志日張甲河東北至脩縣入清者也
청하	清河	淇水	淇水系	水經	09-22		淇水東北過廣宗縣東爲清河
청하	清河		河水系	水經注	10-25		
청하	清河		鮑丘水系	水經注	14-06		
청하지진	清河枝津	清河	淇水系	水經注	09-27		
청하	清河	清河郡	司州	魏書	2461	方輿	郡治
청하	清河	東清河郡	齊州	魏書	2525	方輿	
청하	清河	清河郡	潁州	魏書	2562	方輿	
청하	清河	淮南郡	齊州	魏書	2575	方輿	
청하	清河	清河郡	南建州	魏書	2589	方輿	
청하군	清河具	清河郡	南建州	魏書	2589	方輿	
청하군	清河郡	清河郡	司州	魏書	2461	方輿	
청하	清河郡	清河郡	潁州	魏書	2562	方輿	
청하	清河		清河郡	隋書	846	方輿	清河.하북永年
청하군	清河郡		清河郡	隋書	846	方輿	
청하	清河	貝州	河北道	舊唐書	1497	方輿	清河.하북永年
청하	清河	邯州		新唐書	1013		
청하	清河	恩州	大名府路	金史	628	方輿	清河.하북영년
청하	清河		大名路	元史	1361	方輿	清河.하북永年
청하	清河		淮安路	元史	1416	方輿	清河.강소淮安
청하	清河	宛平縣	順天府	方輿	478	河北	府北二十里
청하	清河	交河縣	河間府	方輿	579	河北	縣西二十五里
청하	清河	清河縣	廣平府	方輿	693	河北	縣西
청하현	清河縣	清河縣	淮安府	方輿	1032	江南	縣治西
청하현	清河縣		廣平府	方輿	0691	河北	永年 漢置東武城縣
청하현	清河縣		淮安府	方輿	1032	江蘇	淮安 漢淮陰縣地唐臨淮縣



肅澄要貢無替式循彝典用纂顯命

待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使兼謁者僕射孫副策命大襲亡祖父牟都為百濟王曰於戲惟爾世襲忠勤誠著遐表滄路

為使

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
위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진동대장군.

또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을 삼았다.

使兼謁者僕射孫副策命大襲亡祖父牟都爲百濟王。
사겸알자복사손부책명대습망조부모도위백제왕.

또 겸알자인 복사 '손부'로 하여금 모대(동성대왕)에게 명하여 그의 죽은 조부 '모도'를 이어서 백제왕을 삼도록 했다.

曰 於戲 惟爾世襲忠勤, 誠著遐表, 滄路肅澄, 要貢無替.
왈 어희 유이세습충근, 성저하표, 창로숙징, 요공무체.

이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오호라! 너희들은 대마다 충성되고 부지런한 것을 이어받아서 그 정성이 먼곳에 나타나 바닷길(또는 큰호수, 강)이 엄숙하고 맑아졌으며, 공물 바치는 것을 조금도 중단하지 않았다.

式循彝典, 用纂顯命.
식순이전, 용찬현명.

땃땃한 법을 잘 지키고 나타난 명령을 받들도록 모두 힘쓸지어다.

平 祖 父 牟 都 爲 百 濟 王 卽 位 章 綬 等 王 銅 虎 竹 符 曰 其 拜 受 不 亦 休
 歟 制 詔 行 都 督 百 濟 諸 軍 事 鎮 東 大 將 軍 百 濟 王 牟 大 今 以 大 襲 祖 父 牟 都 爲 百 濟 王 卽 位
 往 欽 哉 其 敬 膺 休 業 可 不 慎 歟 制 詔 行 都 督 百 濟 諸 軍 事 鎮 東 大 將 軍 百 濟 王 牟 大 今 以 大 襲 祖 父 牟 都 爲 百 濟 王 卽 位

往欽哉 其敬膺休業, 可不慎歟 制詔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
百濟王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 卽位.

왕흠재 기경응휴업, 가불신여 제조행도독백제제군사·진동대장군
백제왕모대금이대습조부모도위백제왕, 즉위.

공경히 아름다운 사업을 지킬 것이니, 어찌 삼가할 일이 아니냐
또 조서를 내려 모대를 도독 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 으로
삼고 “이제 ‘(모)대’는 그의 조부 모도를 계승하여 백제왕을 삼
아 즉위케 하라.

章綬等王銅虎竹符 其拜受, 不亦休乎
장수등왕동호죽부 기배수, 불역휴호

장수 등 왕으로 하여금 동호부와 죽부를 보내노니 이것을 절하
여 받도록 하라.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是歲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入其界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率眾襲擊虜軍大破之建武二年牟大遣使上表曰臣自昔受封世被朝榮忝荷節鉞剋攘列辟

是歲, 魏虜又發騎數十萬攻百濟, 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贊首流·解禮昆·木干那率眾襲擊虜軍, 大破之.

시세, 위로우발기수십만공백제, 입기계, 모대견장사법명·찬수류·해례곤·목간나솔중습격로군, 대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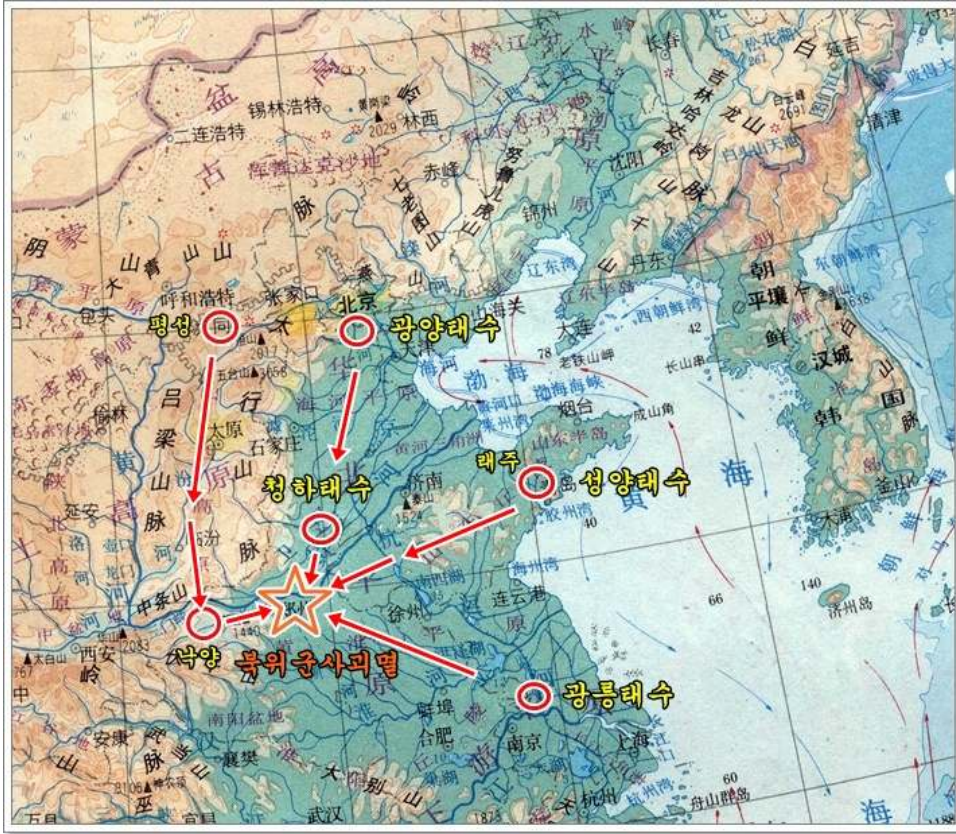
이해(AD490년)위노(북위)가 또 기병 수십만 명을 내에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이에 모대(동성대왕)는 장수 사법명·찬수류·해례곤·목간나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위노 군사를 기습하여 크게 깨뜨렸다.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 臣自昔受封, 世被朝榮, 忝荷節鉞, 剋攘列辟.

건무이년, 모대견사상표왈 신자석수봉, 세피조영, 첨하절월, 극양렬벽.

건무 2년(AD495년) 모대가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신 자신이 앞서서 봉작을 받았고 대대로 조정의 영광을 받았는데 부여받은 부절과 부월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북위의 침략군을) 이기고 물리쳐서 적들을 줄줄이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 북위군사 괴멸 추정도



- 북위는 고구려 제후국으로 보여진다.
- 결국 하북평원 영유권을 놓고 고구려와 백제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蒙光除臣庶咸泰去庚午年獫狁弗悛舉兵深逼臣遣沙法名等領軍逆討
 領軍逆討宵襲霆擊匈梨張惶崩若海蕩乘奔追斬僵尸丹野由
 是摧其銳氣鯨暴韜凶

往姐瑾等竝蒙光除，臣庶咸泰。去庚午年，獫狁弗悛，舉兵深逼。臣遣沙法名等領軍逆討，
 왕저근등병몽광제, 신서함태. 거경오년, 힘운불전, 거병심핍. 신견사법명등령군역토,

이에 여기가는 저근 등은 모두 빛나는 제수를 받았사옵기에, 신은 모두 함께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난 경오년(AD490년)에 힘운(북위)이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 왔습니다. 신이 사법명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북위를 토벌하게 했습니다.

宵襲霆擊，匈梨張惶，崩若海蕩。乘奔追斬，僵尸丹野。
 소습정격, 흥리장황, 붕약해탕. 승분추참, 강시단야.

야간에 습격하여 번개같이 공격하였더니 흥리(북위)가 크게 당황하여 무너지는 것이 바닷물로 쓸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몰아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베어죽이니 그 시체가 평원을 붉게 물들이었습니다.

由是摧其銳氣 鯨暴韜凶.
 유시최기예기 경폭도흥.

이러한 연유로 북위군사들은 날카로운 기운(銳氣)와 고래의 난폭함이 꺾여서 흉악함을 감추었습니다.

褒顯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
 中王解禮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木干那前有軍功又拔臺舫
 爲行廣威將軍面中侯伏願天恩特愍聽除

今邦字謐靜，實名等之略，尋其功勳，宜在褒顯。
 금방우밀정, 실명등지략, 심기공훈, 의재포현.

지금 나라가 조용해 진 진 것은 실로 (사법)명 등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공훈을 찾아서 마땅히 드러내 놓아야합니다.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解禮
 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木干那前有軍功，又拔臺舫，爲行廣威將
 軍·面中侯.

금가사법명행정로장군·매라왕, 찬수류위행안국장군·벽중왕, 해례
 곤위행무위장군·불중후, 목간나전유군공, 우발대방, 위행광위장
 군·면중후.

그래서 지금 임시로 '사법명'을 정로장군 매라왕직을 수행시켰
 고, '찬수류'는 안국장군 벽중왕 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해례
 곤'은 무위장군 불중후 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목간나'도 앞
 서 말한것과 같은 군공이 있고, 돈대와 배(대방) 즉, 항구와 함
 선들을 빼앗았으므로 광위장군 면중후 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5) 안국 : 하북성에 안국이라는 지명이 있다.

伏願天恩特愍聽除.
 복원천은특민청제.

엽드려 원하니 하늘의 은혜로써 특별히 힘써 들어시어 제수해
 주십시오.

其至誠實宜進爵各假行署伏願聖朝特賜除正詔可竝賜軍號
 在官忘私唯公是務見危授命蹈難弗顧今任臣使冒涉波險盡
 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臣慕遺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
 臣王茂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子臣張塞行揚武將軍陳明

又表曰 所遣行龍驤將軍·樂浪太守兼長史臣慕遺， 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臣王茂， 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臣張塞， 行揚武將軍陳明， 在官忘私， 唯公是務， 見危授命， 蹈難弗顧。

우표왈 신소견행룡양장군·악랑태수겸장사신모유, 행건무장군·성양태수겸사마신왕무, 겸참군·행진무장군·조선태수신장새, 행양무장군진명, 재관망사, 유공시무, 견위수명, 도난불고.

또 표문에서 말하길, 신이 사신으로 파견한 바 있는 용양장군 낙랑태수 겸 장사 직을 수행하는 신하인 '모유', 건무장군 성양⁶⁾태수 겸 사마직을 수행하는 신하인 '왕무', 참군 겸 진무장군 조선태수를 수행하는 신하인 '장새', 양무장군 직을 수행하는 '진명' 등은 관직에 있으면서 사적인 생활을 잊고서 오로지 공적인 업무만 바로잡고 위태로움을 보고 명령을 내리면 어려움을 밝고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6) 성양 : 산동성 성양

今任臣使， 冒涉波險， 盡其至誠。 實宜進爵， 各假行署。 伏願聖朝特賜除正。

금임신사, 모섭파험, 진기지성. 실의진작, 각가행서. 복원성조특사제정.

지금 사신의 임무를 맡아 파도와 험한 길을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마땅히 작위를 진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각기 임시로 수행할 직무에 임명하였습니다. 엇드려 원하오니 성조에서 특별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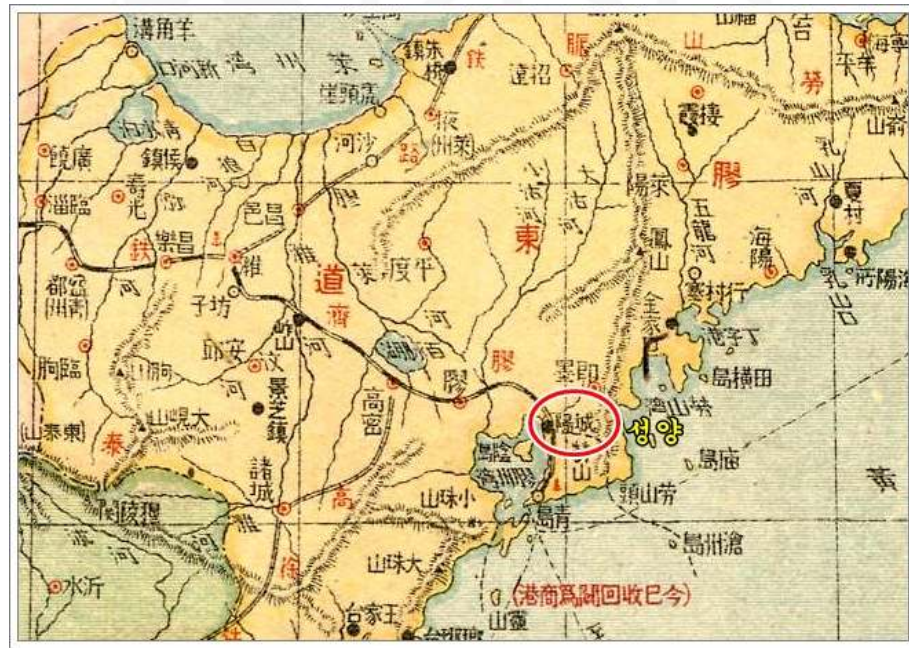
詔可， 竝賜軍號。

조가, 병사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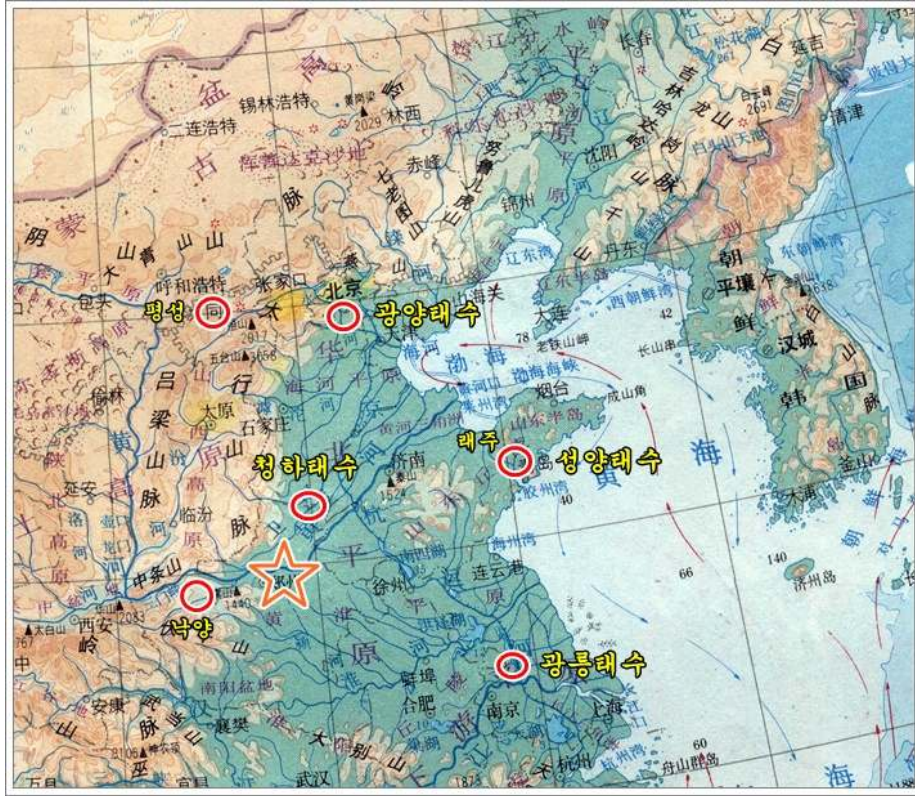
조서를 내려 옳다 하고 아울러 군호를 내려주었다.

6) 성양 : 산동성 성양

성양	城陽	衛曹地名	史記	地名考	556		
성양국	城陽國		城陽國	漢書	1635	方輿	
성양	城陽	濟陰郡	연주	晉書	419	方輿	
성양군	城陽郡	城陽郡	靑州	晉書	450	方輿	郡治
성양	城陽			宋書	1045		
성양	城陽			宋書	1181		
성양	城陽			宋書	1194		
성양	城陽			南齊書	00248		
성양	城陽			南齊書	00263		
성양	城陽			南齊書	00278		
성양	城陽	복양郡	司州	魏書	2460	方輿	
성양	城陽	근성郡	西楚州	魏書	2579	方輿	
성양군	城陽郡	城陽郡	豫州	魏書	2535	方輿	
성양군	城陽郡	城陽郡	西楚州	魏書	2579	方輿	
성양군	城陽郡	城陽郡	협주	魏書	2639	方輿	
성양	城陽		汝南郡	隋書	838	方輿	
성양성	城陽城	壽張縣	연주府	方輿	1459	山東	州東北六十里
성양	成陽	衛曹地名	史記	地名考	556		
성양	成陽	高祖功臣	史記	地名考	724		
성양	成陽		汝南郡	漢書	1562	方輿	
성양	成陽		濟陰郡	漢書	1571	方輿	
성양	成陽		濟陰郡	後漢書	3456	方輿	
성양성	成陽城	光州	汝寧府	方輿	2190	河南	縣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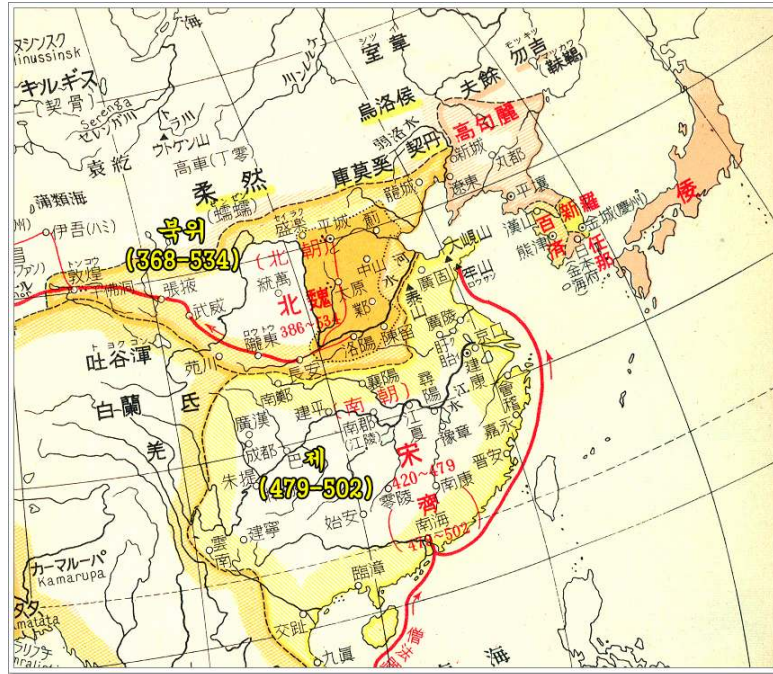
* 남제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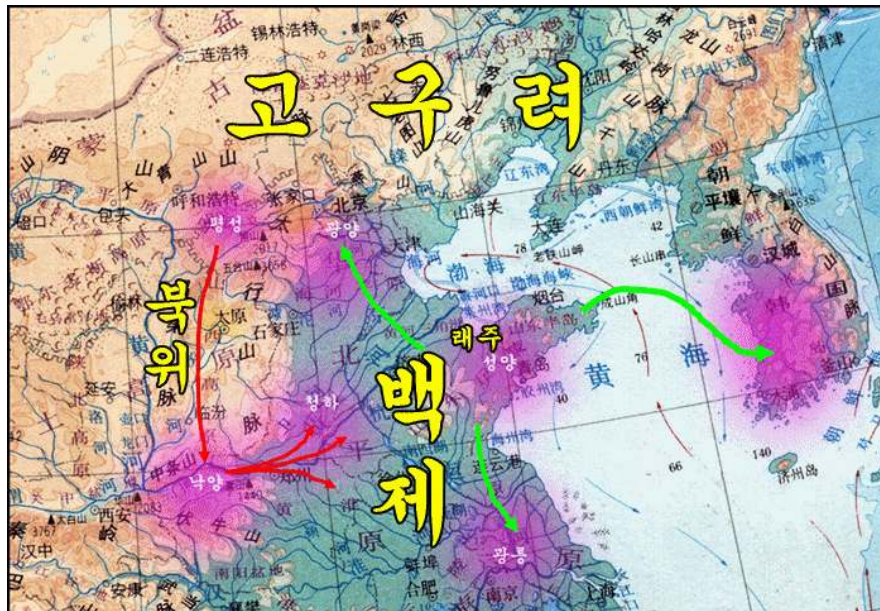
* 태수의 직책 및 위치

성명	기존직책	신규직책
고달(高達)	건위장군(建威將軍) ·광양태수(廣陽太守)·장사(長史)	용양장군(龍驤將軍) ·대방태수(帶方太守)
양무(楊茂)	건위장군(建威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사마(司馬)	건위장군(建威將軍) ·광릉태수(廣陵太守)
회매(會邁)	선위장군(宣威將軍)·참군(參軍)	광무장군(廣武將軍) ·청하태수(清河太守)
모유(慕遺)	-	용양장군(龍驤將軍) ·낙랑태수(樂浪太守) 장사(長史)
왕무(王茂)	-	건무장군(建武將軍) ·성양태수(城陽太守) 사마(司馬)
장새(張塞)	-	참군(參軍)·진무장군(振武將軍) ·조선태수(朝鮮太守)

*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그리는 지도는



* 아래지도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4. 백제의 8대 대성 추적

1) 사서의 기록

북사(北史)와 수서(隋書) 백제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수서 열전 제46 동이 백제(隋書 列傳第四十六 東夷 百濟)

[원문]

國中대성有八族,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국중대성유팔족,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해설]

나라안에 8대 성씨족이 있는데, 사(沙)씨, 연(燕)씨, 협(協)씨¹⁾, 해(解)씨, 진(眞)씨, 국(國)씨, 목(木)씨, 묘(苗)씨²⁾ 이다.

1) ‘荔’자는 ‘리(荔)’자와 비슷함

2) ‘苗’자는 초두변에 아래 가로왈(臼)자임. ‘뫼(백)’자 와도 비슷

* 북사 열전 제82 백제(北史 列傳第八十二 百濟)

[원문]

國中대성有八族, 沙氏、燕氏、荔氏、解氏、眞氏、國氏、木氏、苗氏。
국중대성유팔족,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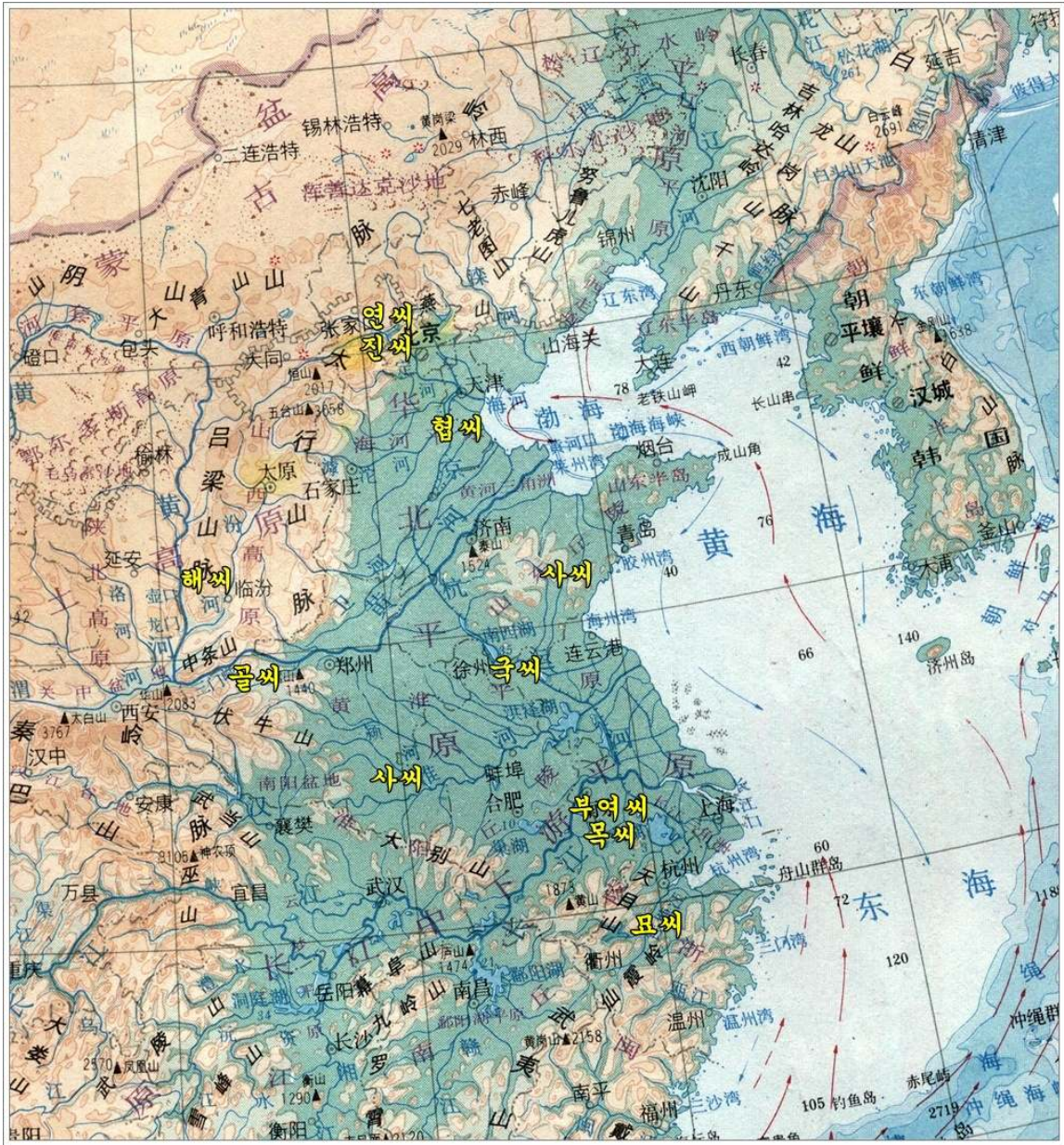
☞ 글자 차이

- 수서 정씨(貞氏) → 북사 진씨(眞氏)
- 수서 묘씨(苗氏) → 북사 묘씨(苗氏)
- 수서는 초두변에 아래 가로왈(臼)자임

백제의 왕족의 성은 부여(夫餘)씨인데, 중국성씨사전에는 부여(夫餘)씨와 복(福)씨 골(骨)씨 등도 8대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2) 백제 8대 성씨 추적 종합도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연씨、협씨、해씨、정씨、국씨、목씨、묘씨。



3) 개별 성씨 추적자료

沙氏、燕氏、姦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1) 沙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 '백제 8대 성씨에 대해' 라는 논문 내용중 일부

성원(姓苑), 성찬(姓纂), 풍속통(風俗通), 통지(通志) 등 사서에 사씨가 언급되어 있는데, 산둥성 동완(東莞)에서 나온 자와, 하남성 여남(汝南)에서 나온자가 있음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 후한(後漢) 때의 '풍속통의(風俗通義)'와 '잠부론(潛夫論)'과 송(宋)시대의 '백가성(百家姓)' 등을 근거로 1994년 중국의 진명원, 왕종원 등이 북경출판사에서 편찬한 책

'군망백가성(郡望百家姓)'에 이르길 사(沙)씨는 여남군(汝南郡)에 나타난다. '성씨고략(姓氏考略)'에 동완(東莞), 여남(汝南)이라 했다.

여남군은 한나라 고제(高帝)때 설치했으며,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중부의 상찰현(上蔡縣) 및 안휘성(安徽省) 회하(淮河)이북지역이다.

동완군은 진(晉)무제 태시(太始) 원년(265년)에 설치되었으며, 지금의 산둥성 기수(沂水), 영현(營縣)일대이며 한나라 양군(陽郡)의 구지(舊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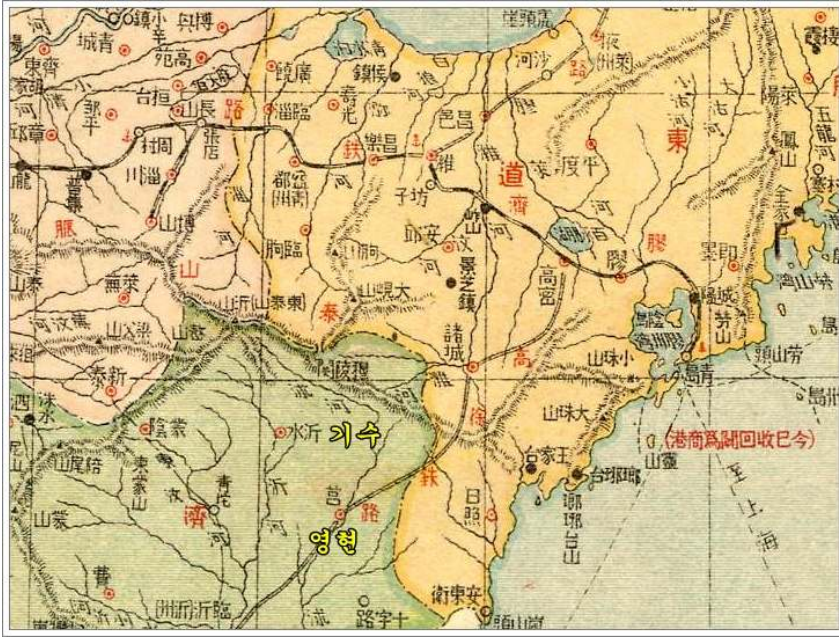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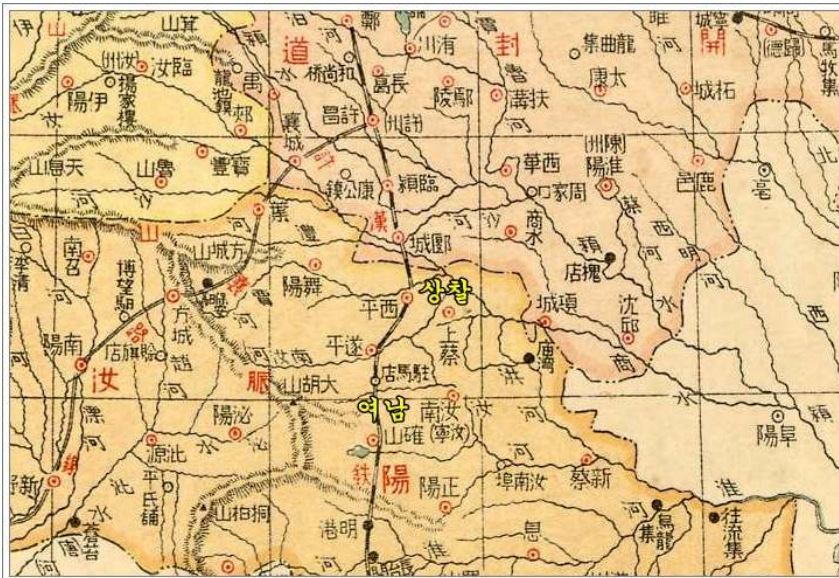
* 史(거창, 청주), 謝(한산, 진주), 畝(태안, 활천, 부평), 司空(효령)씨 있음.

→ 백제의 유명한 인물 : 사법명(沙法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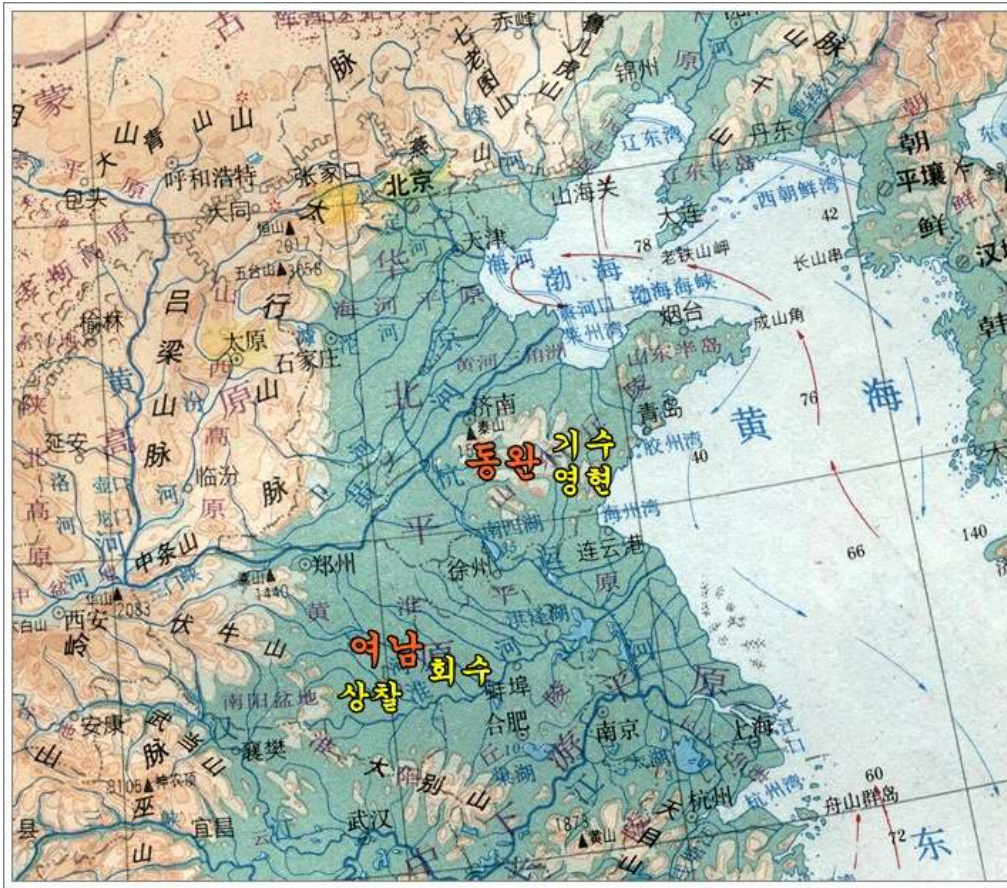
* 산둥성 동완(東莞) : 기수(沂水), 영현(營縣)



* 하남성 여남(汝南) : 상찰현(上蔡縣) 및 안휘성(安徽省) 회하(淮河)이북지역



* 사씨(沙氏) 분포 지도상 종합표시



沙氏、燕氏、姦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2) 燕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정초(鄭樵)의 통지(通志)에서 희성(嬉姓)의 연씨와 고성(告姓) 연씨가 있음. 모두가 조기(早期) 국호(國號)에 의해서 득성(得姓) 했음.

* 告 : 앞에 '女'가 붙은 글자임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연(燕)씨는 '성씨고락'과 '군망백가성'에 의하면 상곡(上谷), 범양(范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상곡군은 현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동남이며 범양군은 현 하북성 탁현 및 북경시 창평현(昌平縣), 방산현(房山縣) 일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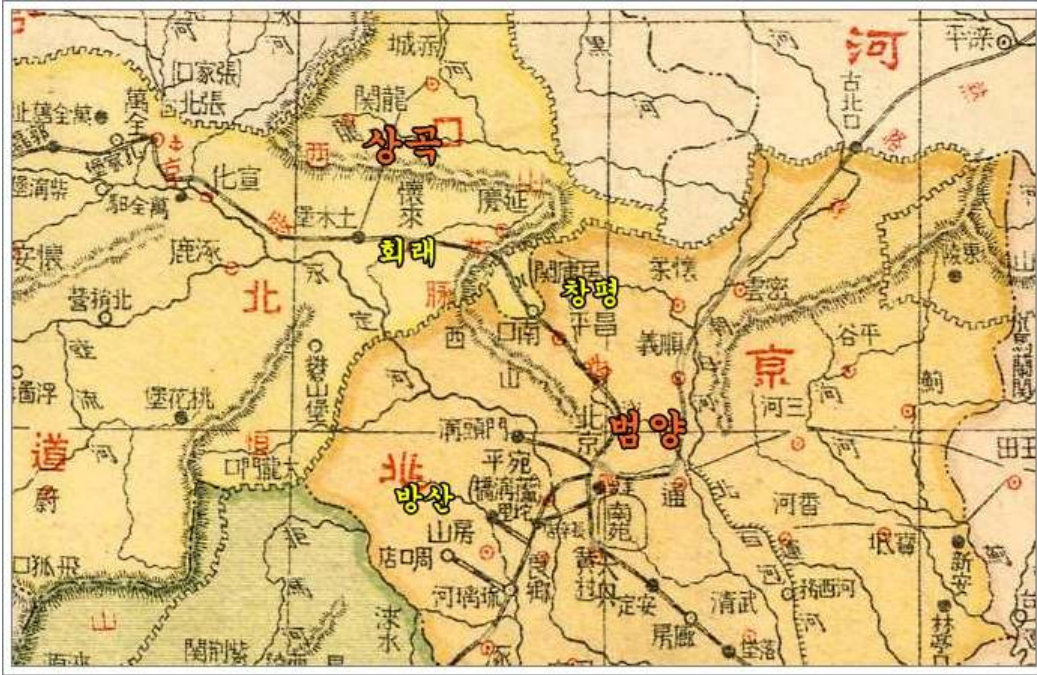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현재 연(燕)씨는 6개의 본관에 인구는 2000년 현재 3,549명이 있다. (138위)

이 중 곡산연씨가 3,205명으로 가장 많다. 전주연씨는 79명, 덕원연씨는 53명, 영평연씨는 59명, 정평연씨는 52명, 평주연씨는 93명이다.

* 상곡(上谷)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동남

* 범양(范陽) 하북성 탁현 및 북경시 창평현(昌平縣), 방산현(房山縣) 일대



* 연씨(燕氏) 분포 지도상 종합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연씨、협씨、해씨、정씨、국씨、목씨、묘씨。

(3) 荔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협(荔)의 음은 려(리, 黎)이다. 정초 통지(通志)에 원래 제국(齊國)의 이름으로 성씨를 삼았다고 하였다.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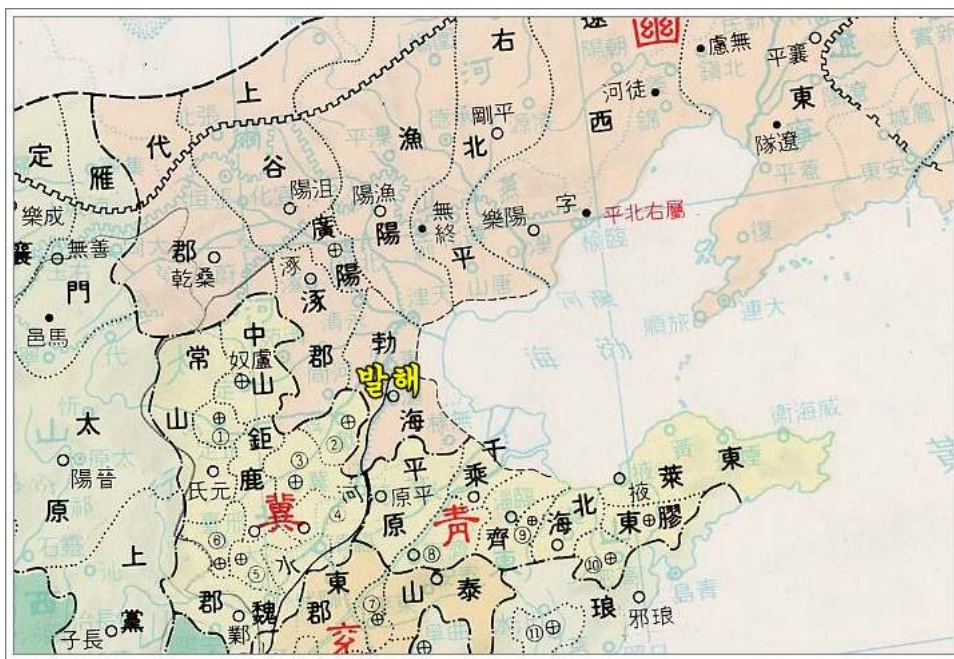
黎(리 또는 荔협)씨는 성씨고락에 의하면 리씨는 발해군(渤海郡)에 보이는데 발해군은 현 하북성, 요령성 발해만 일대를 말한다.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이다.

* 목(김해, 단양)씨 있음.

* 협씨(荔氏) 분포 지도상 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연씨、협씨、해씨、정씨、국씨、목씨、묘씨。

(4) 解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지명이며 하남군(금산서)에 있다. 지명으로 성씨를 삼았다. 진대(晉代)에 해씨가 많았다. 또 해비(解毘)로 하고 있으나 뒤에 가서 해씨로 변경했다.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해(解)씨는 '군망백가성'에 이르기를 평양군(平陽郡)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평양군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임분현(臨汾縣) 서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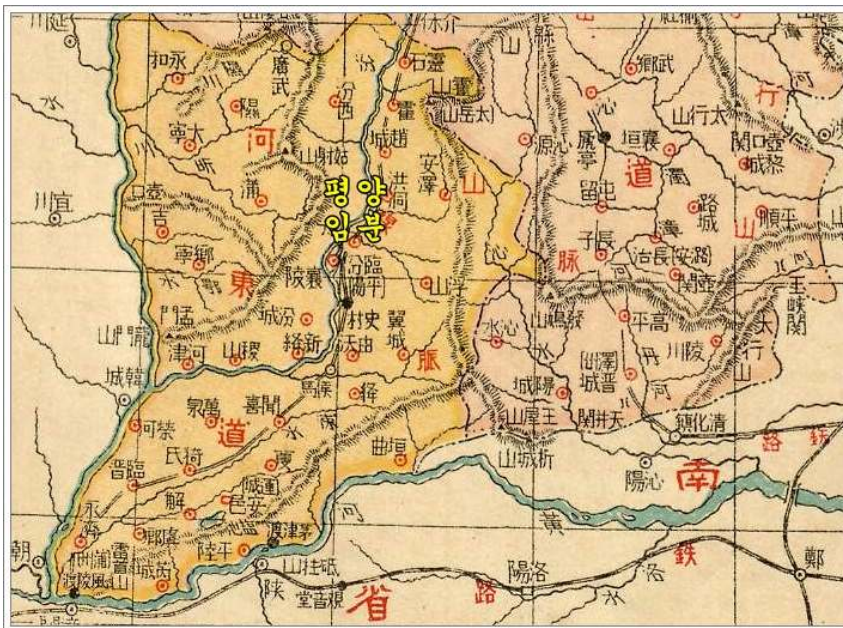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이다.

* 海(김해, 영해)씨 있음.

→ 백제의 유명한 인물 : 해례곤(解禮昆)

* 해씨(解氏) 분포 지도상 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연씨、협씨、해씨、정씨、국씨、목씨、묘씨。

(5) 貞氏 = 眞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일설에 의하면 원래 신씨(愼氏)였던 것을 후에 제왕의 묘호(廟號)를 피휘(避諱)하기 위하여 진씨성으로 바뀌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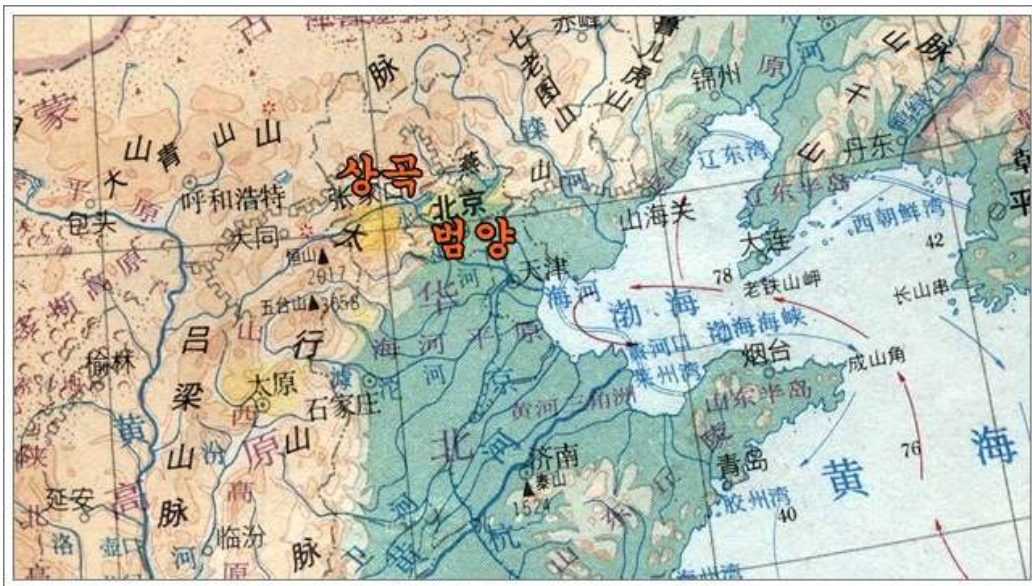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진(眞)씨는 신(愼)씨가 진(眞)씨로 되었다고 하며, '성씨고락'에 의하면 진씨는 상곡군(上谷郡)에 보이는데, 상곡군은 현 하북성 서남부와 회래현(懷來縣) 동남일대를 말한다.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현재 진(眞)씨는 1개의 본관에 인구는 2000년 현재 1,579명이 있다. (164위)

* 진씨(眞氏) 분포 지도상 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6) 國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좌전(左傳)에 정목공(鄭穆公)의 아들 자가 국(國)이라고 기술했고 그후 바로 왕부의 자를 씨로 하여 국성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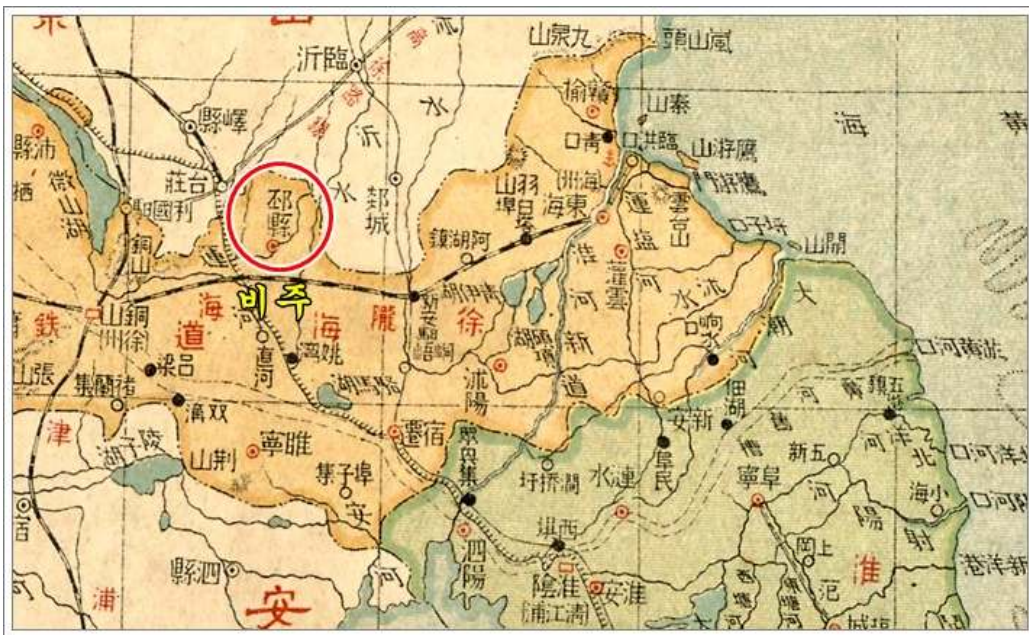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국(國)씨는 '군망백가성'에 하면 국씨는 하비군(下邳郡)에 보이는데 하비군은 동한 때 영평25년(72년)에 임회군(臨淮郡)에 하비국을 둬. 하비(下邳)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비주시(邳州市)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國)씨는 7개의 본관에 인구는 2000년 현재 2,182명이 있다. (154위)

* 국씨(國氏) 분포 지도상 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7) 木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상우록(尙友錄)의 기재에 의하면 목씨는 원래 서목사(瑞木賜) 즉자공(卽子貢)의 후예로 원수를 피하기 위해서 목씨로 바꿨다고 한다.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성씨고략’에 의하면 목(木)씨는 오흥군(吳興郡)에 분포되어 있는데, 오흥군은 지금의 절강성 임안(臨安)에서 강소성 의흥(宜興)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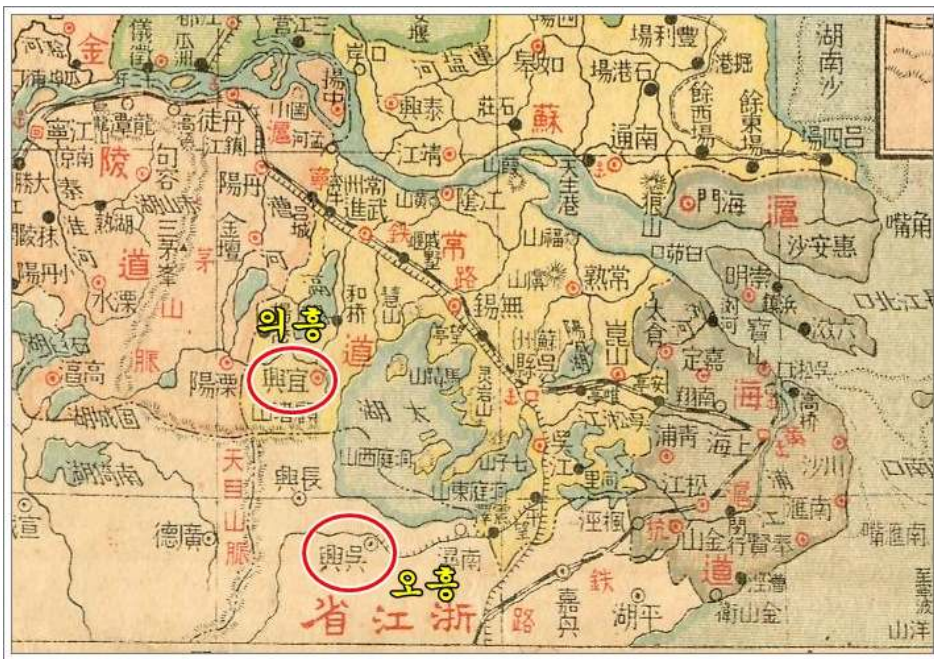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이다.

* 睦(사천)씨 있음.

→ 백제의 유명한 인물 : 목간나(木幹那)

* 목씨(木氏) 분포 지도상 표시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8) 苗氏

① 대만대학 진첩선 교수 의견

당서(當書) 재상세계표(宰相世系表)에 묘씨는 천성(苜姓)에서 나왔고, 초나라 대부(大夫) 백분(伯棼)의 후예이며, 백분은 죄로 살해되자 그의 아들 분황(賁皇)이 진나라로 도망가니, 진후가 그를 묘파(苗巴)에 살도록 하였는데, 그 때문에 지명을 묘(苗姓)으로 삼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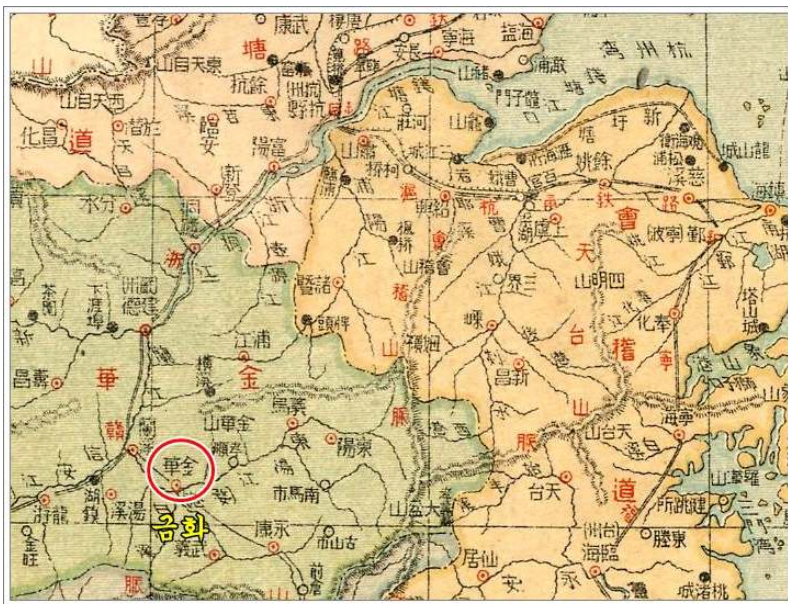
② 중국성씨사전(中國姓氏辭典)

묘(苗)씨는 '군망백가성'에 의하면 동양군에 보이는데, 동양군(東陽郡)은 지금의 강소성 금화(金華)지역

③ 성씨정보 자료 (<http://www.surname.info>)

우리나라에는 현재 묘(苗)씨는 1개의 본관에 인구는 2000년 현재 61명이 있다. (258위)

* 묘씨(苗氏) 분포 지도상 표시



(9) 기타 夫餘氏, 福氏, 骨氏

* 夫餘氏

부여씨는 '풍속통의(風俗通義)'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사기 화식전(史記 貨殖傳)에 의하면 한나라 시기에 북쪽의 오환(烏桓), 부여(夫餘) 등이 그 족명을 성으로 삼았다고 하며, '성씨고락'에 의하면 오흥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흥군은 지금의 절강성 임안에서 강소성 의흥일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없는 성씨이며 목씨(木氏)의 분포지역과 같다.

* 福氏

'군망백가성'에 의하면 복(福)씨는 '백제에서 나왔는데, 백제는 옛 국명이며 본래 부여(扶餘)에서 나왔다. 본시 마한의 제국중의 하나이다. 전설에 의하면 후한말기에 부여왕 위구대(尉仇台)의 후예이며 (백제) 초기에 백가제해(百家濟海)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진(晉)대에 요서, 진평 2군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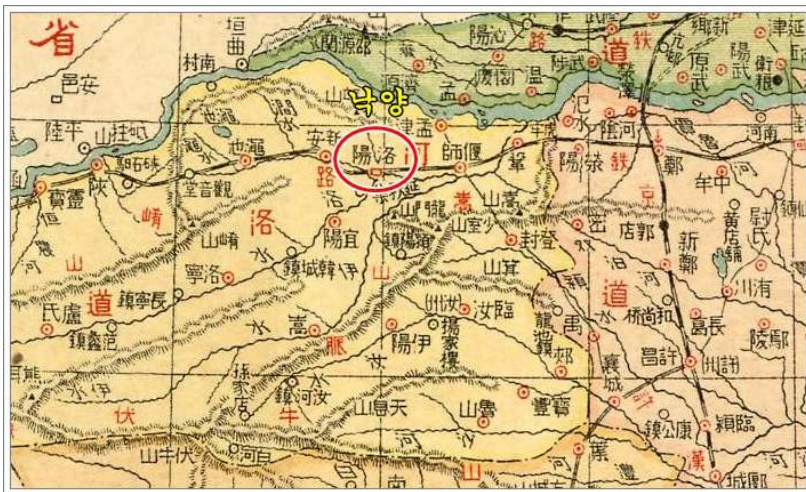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없는 성씨이다.

→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왕(武王)의 조카 복신(福信)

* 骨氏

골(骨)씨는 '성씨고락'에 의하면 하남군에 보이는데 하남군은 지금의 하남성 낙양시 일대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이다.



(10) 종합의견

백제에 가장 큰 성씨가 '沙氏、燕氏、荔氏、解氏、貞氏、國氏、木氏、苗氏'인데, 2000년도 기준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 : <http://www.surname.info>

- 사(沙) : 없음
- 협(荔) : 없음
- 해(解) : 없음
- 목(木) : 없음
- 국(國) : 2,182명(154위)
- 연(燕) : 3,549명(138위)
- 진(眞) : 1,579명(164위)
- 묘(苗) : 61명(258위)

총 7,371명이 살고 있다.

사서를 보면 백제 멸망 당시 200여개의 성(城)이 있었고, 호수(戶數)는 76만호로 기록하고 있다.

구당서(舊唐書) 지리지에서 호당 인구수를 보면 평균 5.7명으로, 토지가 비옥한 지역인 양자강 유역은 호당 인구수가 7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백제의 인구는 430만명에서 530만명에 이르는 나라였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중에서 8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350년 지난 지금의 이땅에 8대 성씨중 4개는 아예 한명도 없고, 나머지 4개 성씨도 7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제서에 나오는 백제 동성대왕의 통치지역인 중국 동부지역에 바로 백제의 8대 대성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이어서 소개하는 삼국사기 최치원전의 기록과 서울대 박창범 교수의 일식분석 논문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대륙백제의 실존을 증빙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5. 삼국사기 열전 제46 최치원전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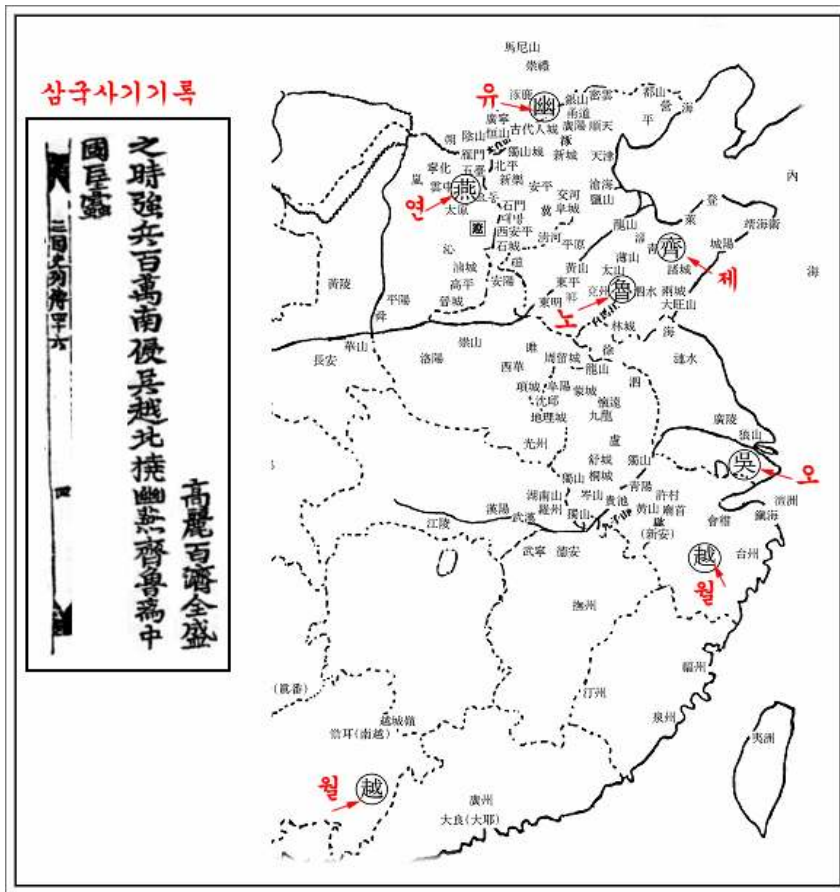
高句麗百濟全盛之時強兵百萬南侵吳越北撓幽燕齊魯爲中國巨蠹
고구려백제전성지시강병백만남침오월북요유연제노위중국거두

[해설]

고구려, 백제가 강성하였을 때 강한 군대 백만을 보유하고 남으로 오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노를 흔들어 중국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

즉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오, 월, 북으로 유, 연, 제, 노를 평정하였다.'는 의미로 남제서 백제 동성대왕의 강역과 일치한다.

* 유연제노오월 위치



6. 자연현상 기록을 이용한 삼국의 위치 고증

- 박창범 교수가 '94년도에 발표한 내용

- 박창범 :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졸, 미 프린스턴대학 천체물리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 현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고려시대에 집필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식(日蝕)이 67회, 행성(行星)운동의 이상현상이 40회, 혜성(彗星)의 출현이 63회, 유성(流星)과 운석(隕石)의 낙하가 42회, 기타 14회 등 총 226회의 많은 천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고대 사서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천문현상 기록들은 각 국 고대과학의 수준과 역사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천문현상에 대한 우리의 고대 기록들은 그동안 국내의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이 천문현상 기록들은 순수 과학적인 그리고 과학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학에도 그 응용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천체에 대한 기록을 당시 주변 국가들의 기록과 비교함으로써 과학 문물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한 특정 국가가 남긴 천체 관측 기록을 분석하여 정세 변화, 강역의 위치 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천문현상 기록뿐만 아니라, 지진(地震), 홍수(洪水), 태풍(颱風) 등의 기상학적, 지질학적 기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자연현상 기록은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이 기록들을 이용하여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천체 관측 기록으로부터 관측을 수행한 나라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은 일식과 같은 현상의 경우 달 그림자가 지구상의 모든 곳에 드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식(蝕)의 진행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식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관측자의 위치, 곧 그 국가의 위치가 되리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식을 이용한 삼국의 위치 고증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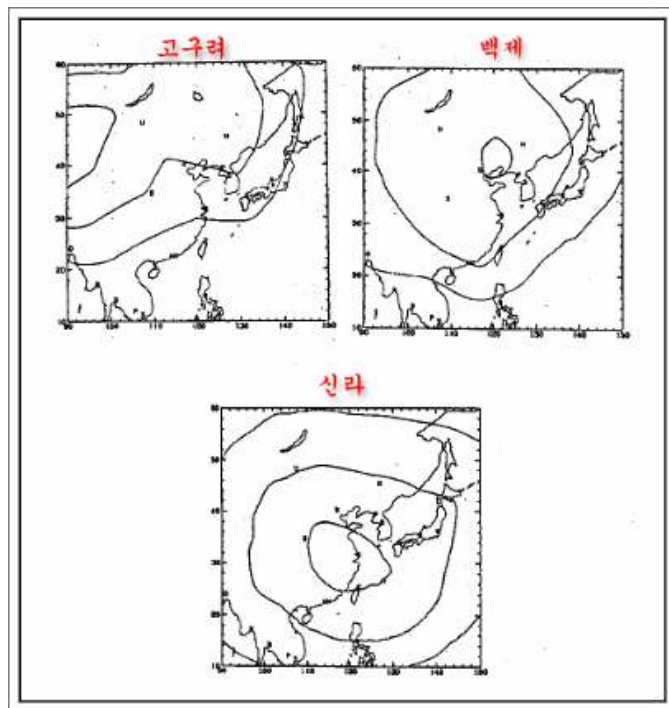
첫째는 특정 국가가 기록한 일식들에 대응하는 천체역학적으로 계산한 실제 일식들의 진행상황을 동아시아 전역에서 조사하여, 그 일식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 관측지를 찾는 방법이다.

다음 쪽에 나오는 세 도표의 평균 식분도는 신라(24회)와 백제(19회)와 고구려(8회)에서 기록한 일식 중 동아시아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식들의 평균식분을 보여준다.

윤곽선 안쪽 지역으로 갈수록 평균식분이 크며, 이것은 곧 그 기록을 남긴 국가의 위치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삼국의 일식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세 경우 모두 한반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식 기록 횟수가 적은 고구려의 경우에는 최적 관측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백제나 신라의 경우보다 북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적 관측지가 확실히 보이는 백제와 신라의 경우에는 각국의 관측자가 발해만과 양자강 유역에 각각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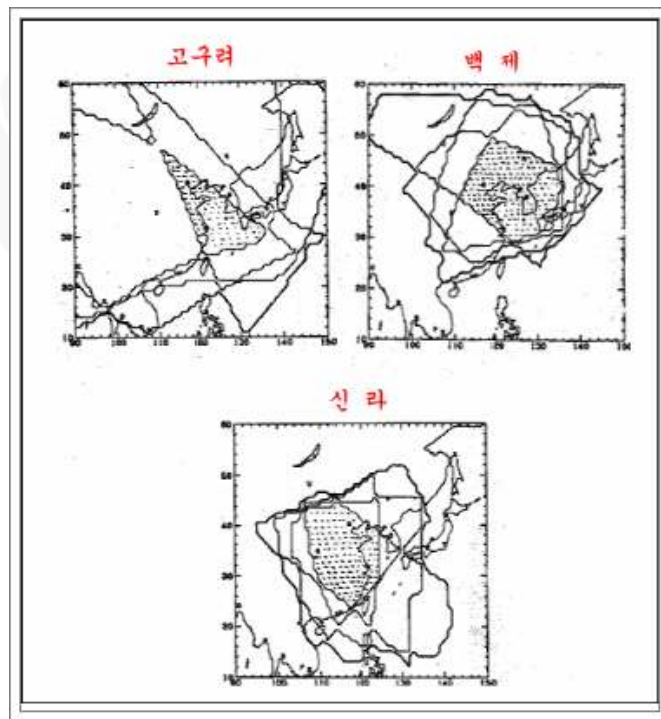


삼국의 위치를 찾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앞의 방법과 정반대로 개개의 일식을 볼 수 없는 지역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 국가가 기록한 일식을 모두 볼 수 있는 지역을 바로 그 국가의 위치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쪽의 세 도표에서 잔 점들을 찍은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1개, 2개 또는 그 이상의 일식들은 기록이 되어있음에도 볼 수 없는 지역이다.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백제와 신라의 경우 기록된 일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앞에서 보인 최적 관측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경우 관측자가 경주에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관측 가능한 24개 일식 중 2개를 전혀 볼 수 없다.



백제와 신라가 현재 중국의 동쪽 지방에 있었다는 생각은 최근 일부 재야 사학가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천체 관측만을 이용한 본 연구 내용에서만 생각하면, 왜 기존 역사관과 달리 백제와 신라의 위치가 중국대륙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삼국사기에 실린 일식기록이 중국기록을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삼국의 천체관측 기록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천체역학적 계산과 사료 비교를 통해 그들은 적어도 5세기까지의 삼국사기 천문현상 기록들은 중국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191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사 서적들에도 이런 주장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구미에서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학자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같은 문제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백제와 신라가 실제로 중국대륙 동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식기록도 삼국의 독자적인 천체 관측 기록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삼국의 위치가 분명 중국대륙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는 심하게 왜곡된 것이고, 바로 잡혀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진실에서 벗어나 이(異)민족이 보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 후손에게 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남제서 동이 백제전

발행일자 : 마고기원 11,148년 음력 8월 12일(양력 9월 9일)

지 은 이 : 우리역사의 비밀 송준희

자료홈페이지 : <http://www.coo2.net>

이 메 일 : songjunhh@nate.com

본 교재는 비매품입니다.